



04-07 동백원 새로짓기
 08-09 10년의 도전과 성장, 꿈을키우는세상
 10-11 따로&같이 행복하기



당신이
 의미
 있습니다

vol.229

가을
 2024.

아동과 장애인, 그리고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꿈꾸는 사회복지법인 동행에서 계간으로 발간하는 소식지입니다.

모두가 행복한 동행
 사회복지법인 DongHaeng 3963

동행을 소개해주세요!

“내가 후원해보니까 동행 믿을만하더라”
 “내가 후원해보니까 동행 사회복지 잘하더라”

가족, 친구, 지인에게
 이렇게 동행을 소개해주시면
 아동과 장애인이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이 희망입니다!

매월 만원이 가치있게 쓰이는 곳 사회복지법인 동행

개인정보	성명 (사업자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계좌이체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		예금주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신용카드	카드사		카드번호	유효기간

상기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및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제3자 동의하며 CMS출금이체를 신청합니다.

· 이체일은 매월 1일이며, 잔고가 부족할 경우 11일 또는 22일에 이체됩니다.

· 동행후원금은 법인세법, 소득세법에 의하여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신청인과 예금주가 다를 경우) 예금주 :

후원신청서 작성 후 사진을 찍어 010-2344-0678로
 문자나 카카오톡(아이디dh1963)으로 보내시면 더욱 편리해요!



QR코드를 스캔하면
 온라인으로 후원신청서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동백원 새로짓기



1988년에 지어진 동백원 생활관은 복도식 건물입니다. 그 시절(1980년대)에는 그렇게 짓는 것이 최선이었습니다. 긴 복도를 두고 양쪽에 방이 있는 구조다 보니 앞쪽은 햇빛도 잘 들어 환하고 좋지만 뒷쪽은 어둡고 우중충했습니다. 건물은 어쩔 수 없었지만 장애인들에 대한 서비스에 진심을 다한 동백원은 한 때 130여 명의 장애인이 함께 생활할 정도로 북적거렸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부족하고 장애인 스스로 자존감이 낮던 시절이지만 동백원에서 가장 역점을 두었던 일은 장애인의 자립이었습니다. 활동보조서비스나 장애인 연금 같은 제도가 시행되기 전부터 장애인들의 자립을 위해 일자리를 마련하고, 독립을 지원했습니다. 그렇게 동백원은 장애인거주시설의 역사를 만들어 왔습니다.

동백원의 정원을 줄이기 위해 전국에서 최초로 아파트 8채를 매입하여 30명의 중증 장애인이 지역 사회에서 보통의 삶을 살도록 이사를 도왔습니다. 그리고 남겨진 동백원의 건물은 세월과 함께 낡고 허름해져서 작은 비바람에도 흔들려 바라볼 때마다 마음이 막막했습니다.

몇 번의 동백원 새로짓기를 시도하다가 2022년에 복지부의 예산이 확정되었지만 턱없이 부족한 예산과 터무니없이 치솟은 자재비 상승에 숨이 막혀왔습니다.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벽돌쌓기 모금을 전개해 ㈜와이엔텍 박용하 회장님을 비롯한 777명의 후원자님이 함께 해주셨으며 다행스럽게도 김영록 전남도지사님과 정기명 여수시장님의 적극적인 협조로 새로운 건물을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어느 집보다 더 포근하고 쾌적한 환경을 갖춘 동백원이 9월 27일 준공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움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새로운 집에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 9.

사회복지법인 동행 대표이사 김홍용

인도기-년복합
동행
사회복지법인 DongHaeng 1963
2024.9. vol.229

발행인 김홍용 편집인 김도요 편집위원 김미애 발행 사회복지법인 동행
주소 59656 여수시 소라면 화양로 1953 전화 061-818-1953 FAX 061-685-3751
홈페이지 <http://www.together63.org>

※ 소식지의 모든 사진은 본인 및 보호자의 동의 하에 게재됩니다.

동백원 새로 짓기

37년의 역사를 넘어 새롭게 태어나는 생활관

글 김수환 (동백원 사무국장)

추억 속 동백원

1988년 문을 연 동백원은 35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수많은 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걱정없이 살아가고, 함께 웃을 수 있는 소중한 공간으로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세월이 흐르며 많은 추억이 쌓이는 만큼 시설은 점차 낡아갔습니다. 오래된 창문은 겨울의 찬 바람을 막아내기 어려웠고, 복도식 구조와 작은방들은 입주자들이 자유롭게 생활하기 어려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삶에 깊이 스며들어 있는 공간이 안전을 저해하는 불편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과거 생활관과 내부 복도

새롭게 탄생한 생활관에서의 새로운 삶

2024년, 동백원의 생활관이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보조금과 법인 기부금, 전라남도과 여수시의 지원이 있었고, 동행과 동백원을 믿고 응원해주시는 많은 후원자분들의 마음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37년 만의 재건축을 통해 빨간 벽돌 건물은 추억 속으로 사라지고 세련된 건물이 들어섰습니다. 복도식 구조는 가정집 구조로 변해 개개인의 사생활이 보장되는 방과 욕실, 함께 사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거실과 주방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최신 설비와 편의 시설을 반영한 새로운 생활관은 입주자들이 더욱 편히 내 집 같이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새롭게 태어난 동백원의 생활관은 단순히 더 나은 생활환경을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곳은 입주자들이 자신의 가능성을 발휘할 수 있는 공간이며, 자립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곳이 될 것입니다. 장애인 가족들에게도 큰 사랑을 받으며 함께 행복한 삶을 꿈꿀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신축 생활관 외관
“새로 생긴 카페 보다 예쁘잖아.”



신축 생활관 2층에서 내려다본 잔디밭
“피크닉이 절로 생각나.”



휠체어가 오가기 쉽도록 외부와 연결된 문턱을 낮춘 거실
“오가며~♪”



거실을 둘러보는 수련이와 들키이
“우리 집이 뷰 맛집인 것 같아!”



생활관 방을 둘러보는 수련이와 들키이
“내 방 어떻게 꾸미지?”



먹고 싶은 건 무엇이든 직접 만들어 먹는 주방
“오늘 뭐 먹지?”



제가 장애인과 직원을 위한 식사 공간
“동백원 밥 맛있는 거 안 비밀~”



모두가 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와 계단
“생활관에 엘리베이터가 생기다니! 너무 감격스러워!”

기다림 끝에 다가온 설렘: 입주를 앞두고

새로운 생활관이 이어지는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입주자들은 임시 거처에서 생활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서 생활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좁은 방과 낮은 환경에서의 생활은 많은 도전을 안겨주었지만, 입주자들은 곧 새 집으로 이사할 날을 기다리며 설렘과 기대를 품었습니다.



마창수 (입주자)

처음 임시 거처로 옮겼을 때는 불편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지더군요. 무엇보다 '곧 더 좋은 곳에서 살 수 있겠지.'라는 생각이 저뿐만 아니라 모든 입주자들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사할 날을 기다리며, 더 나은 환경에서의 생활을 꿈꾸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큰 희망이 되었습니다.

박병은 (입주자)

우리 모두가 함께 이곳에서 지낸 추억을 가지고 새 집에서 더 좋은 추억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이사 날이 가까워지니까 모두들 표정이 밝아지는 게 느껴져요. 새 집에서의 생활이 너무 기대돼요.
동백원 모두 파이팅!



감사의 마음: 함께해주신 후원자님들께

동백원 생활관 새로 짓기에 함께 해주신 많은 분들의 도움과 지원 덕분에 입주자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뜻한 마음을 내어주신 한 분 한 분의 성함이 저희에게 큰 의미로 다가옵니다. 일일이 찾아뵙지 못하지만 소식지 지면을 통해 진심을 짙게 눌러담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앞으로도 이 소중한 공간에서 후원자님들의 기대와 믿음을 지켜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1000만원 이상 (1명)

(주)와이엔텍

U 500만원 이상 (4명)

우종완 장계자 (주)경일에프비 (주)동성인베스트

✿ 300만원 이상 (5명)

박연희 조가연 농협은행(주)여수금융센터 여수제일병원 일우선박(주)

② 200만원 이상 (7명)

(주)엠에스&그린로드(주)광주은행(주)동백사랑교회 언고신관 윤정훈가정의원 킹덤골프스튜디오 한국남동발전(주)여수발전본부

◆ 100만원 이상 (52명)

강경남 강유성 고철욱 김동룡 김맹배 김명래 김미애 김보민 김선주 김연남 김영석 김영화 김진아 문경철 문 정 박태서 박효배 서예성 서은성 신철호 심성영 이고정 이미영 이소라 이시훈 이은화 이정란 임희숙 정경화 정봉태 정봉자 정인순 정 혁 채준석 최수지 최지영 한승하 황 명 황명래 ㈜그린 (주)대경엔앤아이 (주)이레목재 K2여수여천점 기상석소아청소년과의원 박지민스타일에비뉴 순천종로약국 스마일치과의원 칠성패션 카페오랑주 한국지엠여수판매주식회사 호남선박설계 화이트모터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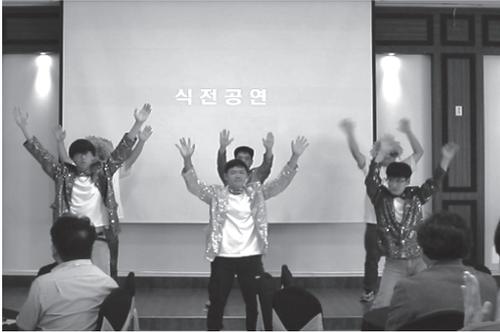
☺ 100만원 미만 (708명)

강경근 강광희 강대일 강동석 강명화 강미림 강 범 강병권 강성국 강성민 강수인 강연덕 강연우 강옥숙 강은숙 강인화 강재황 강점숙 강종배 강창곤 강춘안 강희정 고복암 고영기 고은정 고은진 고진영 고철순 공병승 공수진 공운상 공진옥 공형식 공효두 광민석 광민정 광수지 광순희 광현주 광혜미 구동현 구일숙 국승호 국지훈 국현진 권대진 권미경 권성정 권순덕 권영옥 권은아 기의석 김강자 김강훈 김 건 김건복 김경노 김경수 김경숙 김경심 김경애 김경진 김경희 김관욱 김광순 김광욱 김교준 김규민 김근덕 김근아 김금순 김금지 김기환 김길중 김남석 김다정 김대성 김대열 김대환 김덕래 김도순 김도심 김동식 김동욱 김동호 김맹수 김명숙 김명준 김명희 김미선 김미순 김미애 김미영 김미자 김미정 김미화 김 민 김민조 김민주 김민지 김민혁 김병노 김병오 김복순 김부영 김빛별 김상규 김석영 김선길 김선숙 김선자 김선희 김설화 김성심 김성애 김성용 김성우 김소영 김수순 김수정 김수환 김 숙 김순근 김순례 김순애 김순영 김순희 김승범 김승주 김신호 김연숙 김연호 김연희 김영권 김영두 김영삼 김영숙 김영주 김영표 김영호 김옥심 김원익 김유철 김유희 김윤상 김윤정 김윤철 김은라 김은수 김은승 김은실 김은영 김은자 김은정 김은하 김이정 김익수 김점현 김정란 김정숙 김정순 김경심 김경애 김계주 김종근 김종민 김종업 김종열 김종택 김종택 김준석 김지성 김지에 김지연 김지영 김진규 김진명 김진석 김진숙 김진옥 김진팔 김진희 김찬석 김찬원 김창범 김창영 김재원 김재호 김철명 김춘자 김충식 김태수 김태현 김필순 김형자 김현경 김현나 김현숙 김현우 김현정 김형심 김호영 김희란 김희선 김희정 나명철 나은희 나정인 나정현 나 훈 남경희 남연희 남철우 노미하 노송희 도선덕 류진수 류창현 류하연 마미수 마삼숙 마수영 마창수 마혜린 맹정에 명민철 명성숙 문광식 문명자 문봉식 문선식 문선아 문영숙 문은정 문재숙 문지목 문창민 문학균 민경오 민경현 민금숙 민점례 민점숙 박경아 박경호 박경희 박광근 박규서 박다소 박명호 박미영 박민수 박범환 박병채 박상은 박상환 박석주 박선아 박선주 박시영 박애자 박양자 박영민 박영평 박용엽 박용일 박유니 박운소 박은미 박은아 박은화 박의심 박점심 박정남 박정래 박정민 박정범 박정선 박정숙 박정하 박준상 박지성 박지호 박창대 박충배 박혜정 박행금 박현숙 박혜미 박혜민 박화성 배문엽 배상호 배유정 배춘근 백덕례 백상훈 백승호 백영숙 백용안 백은정 변발선 변정규 변혜선 봉원철 사대인 서기향 서덕문 서동찬 서문희 서미숙 서선미 서성희 서양순 서양중 서영준 서용준 서재식 서중문 서준희 서 현 서현민 서현숙 서희오 손대산 손대은 손순희 손영신 송명호 송 민 송선경 송애리 송연화 송영순 송진남 송 희 신관철 신명선 신성임 신 수 신용우 신윤선 신이준 신진영 신창숙 신창용 신현호 신혜숙 심규철 심규수 심규천 심외정 심지원 심종택 안경실 안경아 안나경 안내성 안비아 안승오 안정임 안지현 안혜신 양광욱 양금희 양은경 양은지 양지나 양희자 양희천 엄승섭 엄정희 오세중 오순자 오승만 오승희 오영복 오우석 오지관 오하나 오희환 왕세화 왕승호 우명호 우복란 우은정 위계열 유광석 유명자 유미순 유민희 유봉애 유승호 유지용 유지운 유혜선 유현희 윤금식 윤명래 윤민경 윤병석 윤병은 윤상혁 윤석진 윤순옥 윤수정 윤영애 윤은옥 윤은혜 윤주안 윤지숙 윤철심 윤현중 윤형채 은 진 이강현 이건성 이경래 이경아 이경자 이계수 이광산 이귀영 이금실 이기남 이나현 이대운 이명훈 이미애 이미용 이미정 이미주 이미화 이민경 이민우 이민주 이보라미 이상규 이상근 이상우 이상호 이상훈 이석형 이석희 이선숙 이선화 이성규 이성찬 이수한 이슬아 이승호 이승환 이신규 이애란 이양재 이연경 이영찬 이예은 이윤국 이 용 이유진 이은경 이은순 이은철 이인영 이재환 이정래 이정숙 이정심 이정자 이정철 이종석 이주화 이준영 이진영 이창규 이철호 이학선 이혜란 이현미 이현민 이혜원 이홍래 이화숙 이화춘 이효순 이희숙 이희일 임광선 임광숙 임동석 임선영 임숙희 임순남 임양현 임영옥 임영혜 임중연 임지미 임창숙 임채현 임혜준 임혜래 임형래 장관수 장미순 장미자 장미정 장봉일 장수정 장연자 장영진 장은순 장유리 장재필 장종찬 장준화 장진석 장진실 장태호 장현주 장홍순 장홍준 장환희 장효연 전명자 전병권 전성원 전숙희 전영배 전요정 전주원 전하진 전행숙 정경남 정경순 정경운 정경화 정공자 정미경 정미숙 정병중 정석왕 정선업 정수정 정수진 정순애 정연희 정영신 정영심 정영연 정완선 정용욱 정용훈 정운정 정은미 정은숙 정은정 정이현 정인숙 정인옥 정정화 정종생 정종이 정종훈 정주리 정준오 정지균 정진옥 정재경 정하준 정현숙 정혜란 정혜진 정희숙 조문규 조세훈 조영신 조영애 조윤자 조인애 조중기 조철우 조태양 조행중 조현미 조현진 조형의 주기남 주대봉 주미옥 주영일 주영현 주정호 주정희 주지영 주현우 주형호 주환호 진 실 진양환 진주연 진혜란 차선자 채광숙 천창숙 최경아 최경자 최덕자 최명숙 최명희 최문경 최미숙 최민규 최민자 최복순 최복영 최복림 최상철 최선진 최성규 최성화 최성훈 최소연 최수정 최 영 최영배 최영자 최정문 최정식 최정아 최정희 최 철 최철환 최 현 최홍준 최희라 추선히 하명서 하수남 하숙현 한승수 한양숙 한옥순 현진경 한우리 한의진 한정희 함성문 허남섭 허덕영 허은자 허한영 현 유 현진경 홍기석 홍석모 홍성수 홍수빈 홍승남 홍이선 홍인화 홍재원 황경희 황금숙 황명숙 황미숙 황보원 황영미 황인식 황주성 황지원 황진희 황현주 황효숙 (유)이진특수 (주)동일하이씨푸드 (주)에이치건설 (주)삼성국제여행사 (주)성해농업회사법인 (주)종이와사람들 11월 CJ대한통운택배전남여수선원점 가람주방생활용품 감성앤바이블협동조합 관기초등학교학생회 금호부동산 로꼬동전노래연습장 로터리체육대회 사부작사부작 새마을주막1969 성실건어물마트 스타디카페포커스여수여천점 신성테크 아침농장 으뜸정보통신 정현여수맛집 제207,208대양호 주식회사11월 차일드유수캐퍼스 케이엘산업 쿠팡제주제과파리스타학원 페이퍼플러스 하모니호텔 화성OA 휴먼피부과의원김포점

새 집에서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10년의 도전과 성장, 장애인 고용의 새로운 길을 열다

글 김영기 (꿈을키우는세상 사회복지사)



순천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꿈을키우는세상』이 2024년 8월 1일 개원 10주년을 맞이하여 성대한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근로장애인과 보호자, 후원자, 관계 공무원 등 150여 명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셨고 근로장애인분들이 준비한 활기찬 춤과 노래로 기념식이 시작되었습니다.



본식에서는 10여 년 동안 헌신해 온 장기근속 근로장애인분들께 감사패가 수여되었고, 김홍용 대표이사(사회복지법인 동행), 김재빈 국장(순천시민복지국)의 축사가 있었습니다. 이어 지난 10년간의 성과를 함께 되돌아보며, 꿈을키우는세상의 발자취를 되새기는 시간과 장애인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과 가치에 대해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꿈을키우는세상은 '한 명의 장애인이라도 더 고용하는 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라는 모토로 2014년에 문을 열었습니다.



개원 시 10명의 근로장애인과 2,400만 원의 매출로 시작해,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거듭하여 2023년에는 32명의 근로장애인과 27억 원의 매출을 달성하는 눈부신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2024년 2월 1일에는 보호작업장에서 근로사업장으로 전환하고, 지역사회 장애인들의 일자리 제공과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며 직업재활시설로서의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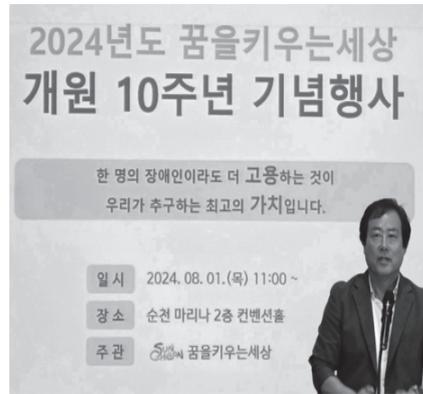
이러한 성장을 바탕으로 2025년까지 근로장애인 35명을 고용하여 많은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꿈을키우는세상은 더 많은 장애인들이 자립하고, 당당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열심히 발로 뛰며 거래처를 늘리고, 매출을 높이겠습니다. 장애인들이 일자리를 통해 스스로의 가치를 발견하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존재로 성장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꿈을키우는세상 개원 10주년 감사인사

김성용 (꿈을키우는세상 원장)

꿈을키우는세상이 지금까지 이룩한 성과는 많은 분들의 헌신 덕분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장애인분들이 사회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10년 후의 꿈을키우는세상이 어떤 모습일지 기대하며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유형완 (꿈을키우는세상 부모회 회장)

꿈을키우는세상이 100년 기업으로 성장하여 지금처럼 근로장애인들의 복지증진과 사회의 일원으로서 굳건히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기를 희망합니다.

이종안 (꿈을키우는세상 근로장애인)

저는 꿈을키우는세상에서 근무한지 10년이 되어갑니다. 꿈을키우는세상에 근무하고 있는 선생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꿈을키우는세상 판매 제품

두루마리 화장지, 점보롤 화장지, 미용티슈, 핸드타올, 키친타올, 냅킨

- 문의전화 : 061-752-8300

- 홈페이지 : <http://www.dreamday7.com>

주문은 사랑입니다. ♡

함께하는 발걸음 “따로&같이 행복하기”

글 정경화 (동백원 사회복지사)

동백원은 올해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아 장애인 가족들을 위한 특별한 사업 『따로 & 같이 행복하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은 장애인 가족들이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정서적으로 교감하며, 사회적 지지체계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가족 간의 유대감을 높이고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를 통해 장애인 가족들이 서로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함께 극복할 수 있는 힘을 키우고 있습니다.



가족교육

보호자들이 서로의 역할을 이해하고, 가족의 특성을 배워가는 시간을 통해 가족 구성원 간의 소통과 이해를 돕습니다.



가족관계증진 프로그램

과일청, 쿠키 만들기 등 보호자와 자녀가 함께하는 체험활동을 통해 특별한 추억을 만들고 있습니다.



가족 힐링 여행

일상에서 벗어나 여름 물놀이를 즐기며 가족 간의 유대감을 더욱 깊게 다질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조모임

장애인 가족들이 정기적으로 모여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지지하며 정서적 교감을 나누고 있습니다.

서로의 길을 이해하며 함께 걷다: 타 지역에서 만난 두 어머니의 이야기

이번 프로그램에서 만난 송화린 어머니와 이현미 어머니는 서로 모르는 사이였습니다. 동갑내기 두 어머니는 같은 나이대의 장애를 가진 자녀를 키우며 비슷한 고민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공통점을 발견하면서 금방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두 어머니께서는 프로그램 초기에 느꼈던 어색함을 떠올리며, 자녀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친밀감을 쌓아갔다고 회상했습니다. 혼자서만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했던 어머니들은 대화를 통해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느꼈습니다. 같은 상황을 겪고 있는 누군가와 경험을 공유할 수 있다는 사실이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두 어머니는 프로그램이 끝난 후에도 계속해서 교류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좋은 기회가 자주 있지 않으니, 저희끼리라도 모임을 만들어서 계속 소통하기로 했어요. 앞으로 자녀들도 함께 모일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고 싶어요."

또한, 두 어머니 모두 이번 프로그램이 자신들에게 큰 힘이 되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정말 많은 것을 배웠고, 무엇보다도 좋은 인연을 만나게 되어 감사해요.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더 많아져서, 더 많은 가족들이 함께 힘을 얻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은  사랑의열매 전남 시애틀지역공동체 지원 덕분입니다.
앞으로도 동백원은 장애인 가족들이 보다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저, 독립했습니다.

글 손옥존 (동행빌리지)

동백원이 소규모화되면서 동행빌리지라는 아파트형 장애인거주시설이 탄생하였고 아파트로 이사 하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30년을 살아 너무나 익숙한 동백원을 뒤로하고 아파트로 간다는 것은 좀처럼 용기가 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두려움이 앞서 망설이고 있을 때 3개월만 살아보자는 직원의 말에 용기를 내어 동행빌리지 아파트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막상 아파트에 살아보니 불편한 것이 더 많았습니다. 오래된 아파트라 경사로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입구부터 문턱, 좁은 화장실, 울퉁불퉁한 길까지... 다시 동백원으로 돌아가고 싶었지만 그때마다 동행빌리지 직원들이 저를 붙잡아 주었습니다. 같이 경사로도 고치고, 집 문턱도 없애고, 화장실 리모델링도 했습니다. 동행빌리지 입주자 대표도 맡고, 이웃과 인사도 하고 지내면서 점점 아파트라는 곳이 살만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용기를 얻어 자립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직원의 권유로 생애 처음으로 청약통장을 만들어 2년간 적금을 넣으며 차근차근 자립을 준비했습니다. 2024년 3월,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아파트 당첨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늘 변화를 두려워했던 내가 맞나 싶게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자립을 하는 과정의 모든 순간마다 동행빌리지 직원들의 도움이 컸습니다. 살림살이 장만부터 이사까지... 새 가구와 가전으로 가득 찬 '내 집'에 들어서니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이사하고 짐정리가 다 끝난 후 집들이를 하면서 소심했던 지난날을 생각하니 웃음이 나왔습니다. 많은 직원들의 지원이 없었다면 이러한 꿈을 꾸지도, 용기를 내지도 못했을 겁니다.

열심히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동행빌리지 원장님, 선생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고마운 분들과 함께한 즐거운 집들이



나 혼자 산다! 좋다!

꿈을 키우는 자립하우스

글 박지인 (삼혜원 사회복지사)

삼혜원에 자립하우스가 생겼습니다! 『지역사회와 함께 아동의 미래를 책임지는 복지실현』이라는 미션 아래 자립하우스 2개소 설립을 목표로 고군분투하던 중, (주)HK건설자산관리에서 도시형 생활주택 ‘메트하임 여수’ 1채를 2년 간 무상임대 해주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삼혜원 창문을 열면 길 건너 메트하임 건물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몇 해 전 삼혜원에서 퇴소한 김채민 군(가명)이 생활하는 곳이라 늘 시선이 머무는 장소입니다. 메트하임 1층에 있는 커피숍에서 김채민 군과 안부를 나누던 중 우연히 (주)HK건설자산관리 홍성진 대표이사님을 뵈었던 인연이 자립하우스 무상 임대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6월 12일, 삼혜원과 (주)HK건설자산관리가 ‘자립하우스 지원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셨고, 언론보도로 주목도 받았습니다. 앞으로 할 일은 삼혜원 아동과 퇴소 청년들이 자립능력을 키워갈 수 있도록 자립하우스를 충분히 활용하는 것입니다.

시설 아동들은 18세가 되면 시설 보호가 종료되어 이른 시기에 홀로 삶을 꾸려가야 하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몇 년 사이 퇴소 청년들의 힘든 삶이 사회적 이슈가 되며 2022년 6월부터 보호기간이 24세로 연장되어, 앞으로 자립하우스의 역할도 점점 더 커질 것 같습니다.

7~8월에 방학을 맞이한 대학생들이 새로 생긴 자립하우스에서 생활해 보았습니다. 안전한 공간에서 자신만의 일상을 꾸리는 모습을 보니 뿌듯했습니다. 퇴소 청년들이 사회에 나가 단단하게 뿌리내리는 그날까지 자립하우스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일의 꿈을 키우는 자립하우스! 큰 도움 주신 (주)HK건설자산관리 홍성진 대표이사님 감사합니다!



나눔 릴레이

나눌수록 더해지는 기쁨을 아는 소중한 분들의 관심과 사랑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24년 가을호 인터뷰 : 박철우 후원자님 (라이라이 · 낭만칼국수 대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중화요리 전문점 라이라이(거북선공원2길 21, 1층)와 낭만칼국수(시청서1길 52, 1층)를 운영하고 있는 박철우입니다.

후원을 시작하게 된 계기와 삼혜원과의 첫 만남이 궁금합니다.

어릴 적 꿈과 신앙생활의 영향으로 자연스럽게 아동들을 돕겠다는 마음을 품고 살았습니다. 라이라이를 개업하고 지역 내 여러 복지기관에 후원을 하던 중 2015년부터 삼혜원과 인연을 맺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연중 가장 장사가 잘되는 크리스마스날 발생한 매출 전액을 후원했는데, 아동들과 제가 더 자주 느낄 수 있는 행복이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매월 식사를 후원하는 방향으로 바꾸었습니다. 2018년부터 동행주간보호센터 장애인분들을 위한 식사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어르신들을 위한 또 다른 나눔 활동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라이라이가 학동 거북선 공원 옆에 있어 공원을 찾으시는 어르신들께서 많이 이용해 주셨습니다. 고마움에 보답하고자 매월 첫째 주 화요일 라이라이에 오시는 어르신들께 무료로 점심을 대접하고 있습니다. 가게 규모 등 제한이 있어 더 많은 분들과 나누지 못해 아쉽지만, 제가 할 수 있는 나눔을 꾸준히 실천하고자 합니다.

후원 과정에서 가장 보람을 느꼈던 순간은 언제일까요?

저희가 준비한 음식을 맛있게 드시는 모습, 건강하게 성장하는 삼혜원 아동들을 보면 뿌듯합니다. 특별한 순간이 있다기보다 늘 보람을 느끼고 있어요. 후원을 통해 좋은 인연을 맺을 수 있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행복은 나눌수록 커진다는 말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부담 없는 가격, 맛있는 음식으로 많은 분들이 편하게 찾는 라이라이, 낭만칼국수가 될 수 있도록, 행복을 키우고 나누는 곳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 동행은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나누는 기업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스치면 인연, 스며들면 사랑

10년, 20년,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늘 '동행' 해주시는 후원자님들께 진심으로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소중한 후원금은 아동과 장애인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쓰이고 있습니다.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는 세상을 위해 사회복지법인 동행은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아
름
다
운
나
눔

한결같은 그 마음에 늘 감사드립니다.

2024년 7월 ~ 9월에 5주년, 10주년, 15주년, 20주년, 25주년, 30주년을 맞이하신 분들입니다.

30주년 (1명)

손철문

25주년 (4명)

박계우 서태열 이석형 조진희

20주년 (16명)

김경훈 김서형 김행희 문규현 박규정 박재호 방영희 이경미 이현주 정우석 조재원 조형근 천명준 최상득 추용호 황명순

15주년 (15명)

강성란 김경진 김수서 김영실 김재민 김종민 나명숙 류옥환 서재정 송재훈 오승환 이의석 정재영 최재인 한영자

10주년 (36명)

강봉구 강봉숙 고지훈 권연순 권정희 김경민 김대한 김도심 김명준 김병훈 김선에 김성우 김용삼 김주영 김준택 나정현 나혜영 박관호 박동식 박한규 서성수 서은희 송수효 심귀철 심왕국 양주연 이덕현 이지숙 이형선 임정희 장임숙 전숙희 조영민 최봉애 최승락 허은영

5주년 (38명)

강미영 강승남 권은서 김경미 김설화 김은형 김현수 노재욱 민은경 박상선 박지은 서수철 서영아 서정화 선태원 손명준 양정열 엄성용 엄영준 엄지웅 엄지현 엄태용 오석희 유영남 이광민 이광훈 이순아 이안숙 임기문 조규창 조진우 주민음 차미숙 최정환 한병철 황상덕 황여진 황준선

후원 첫돌을 감사드립니다. (18명) 소중한 나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3년 7월~9월에 후원을 시작하신 분들입니다.)

강주현 김미정 김임규 김하은 김효령 문미덕 문선아 박준태 박해찬 오홍원 이환태 임태현 장정현 조하나 조한결 조한울 허경애 소호반점

24년 6월~ 24년 8월 신규후원자 (68명) 소중한 인연이 시작되어 정말 기쁩니다.

강래은 강래준 강래현 강윤화 강홍순 김다운 김동욱 김명숙 김명호 김병노 김복연 김소윤 김승민 김시훈 김정선 김정수 김종현 김지현 김진희 김한별 김한철 문서연 박경선 박두자 박백덕 백경희 석건우 선정현 신유준 엄예빈 엄말레 유동신 윤여인 윤정찬 윤준석 윤창완 이상열 이서주 이성심 이연수 이윤주 이종숙 장수정 전성안 전용수 전주영 전지영 정문식 정정엽 정종생 조선미 주미경 지선임 최관진 최우철 최진혁 허성준 허정희 홍해덕 황대영 (주)누리 (주)성해농업회사법인 (주)성훈정보통신 낭도전기조명인테리어 디자인샵 뷰가리조트 수인터비셔널 퍼스트안전지도사사무소

24년 6월 ~ 24년 8월 더 큰 사랑을 결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증액후원자 (4명)

류옥환 20,000원 → 30,000원 유성진 150,000원 → 200,000원 임성희 30,000원 → 50,000원 조민정 10,000원 → 20,000원

직원동정

장기근속자 (2024년 9월 기준)

- 25주년 주요정(동행빌리지)
- 10주년 김대환(삼혜원), 이승근(동행빌리지)
- 5주년 김윤철(동백원), 임기문(가나현)

배움의기쁨

- 6/11~8/7 전남사회서비스원 찾아가는 인권강사 양성과정(10회기) (가나현 안진희, 공동생활가정 손행은, 이소영, 삼혜원 박병규, 전숙희)
- 6/18~8/8 여수주간이용시설 감각통합(4회기) 교육 (동행주간보호센터 강영남, 김연남, 김진아, 김호영, 이고정, 한승하)
- 6/19~21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발달장애 행동읽기 교육 (동백원 김윤철, 윤경훈)
- 7/11~12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고도 중증장애인 케어기술 나눔 워크숍 (가나현 이효양, 주지영)
- 7/17 전남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 사례관리 교육 (공동생활가정 나승현, 맹정애, 가나현 김영도, 주원주, 동백원 김덕용, 이솔, 이승호)
- 8/23~24 사단법인 생명문화LifeHope 생명존중교육 강사 양성 과정 (삼혜원 이상범, 황운옥)

그 외 24개 교육에 110명의 직원이 참여했습니다.

동행소식



[가나현 · 늘봄주간활동센터 · 동백원] 6/27 여수국가산단 견학 행복나들이

중증장애인 22명과 종사자 18명이 여수시·여수산단공동발전협의회가 사회공헌 활동으로 마련한 '행복나들이'에 참여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여수국가산단을 직접 둘러보고 평소에 쉽게 접할 수 없던 산업단지의 규모와 발전 과정을 들을 수 있어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맛있게 점심식사를 한 후에는 아쿠아플라넷 여수를 방문하여 다양한 해양 생물들을 가까이에서 만나보고 인어쇼를 관람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행복나들이'를 통해 여수의 멋진 자연과 산업을 직접 체험할 수 있었고, 모두가 즐거운 추억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소중한 기회를 제공해 준 여수시·여수산단공동발전협의회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동행소식



[동행빌리지] 6/21~22 서울 여행은 즐거워

정태일님께서 배채승 자원봉사자님과 함께 1박 2일 서울 자유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청와대의 역사적인 건물과 정원을 보고 남산타워, 인사동 골목, 롯데월드타워를 관람하며 매우 즐거웠습니다. 비가 오자 우의를 챙겨주시는 친절하신 사람들과 편의시설 덕분에 많은 추억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가나현] 7/1~2 우프학교 『동아리MT』 다녀오다!

금호미쓰이화학(주)의 지원으로 다녀온 우프학교 동아리 MT! 여름을 맞아 돌산 뷰가리조트에서 시원한 1박 2일 물놀이를 즐기고 왔습니다. 다양한 게임들과 이벤트로 가득한 MT 분위기 속에서 서로 소통하고 힐링하는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꿈키우는세상] 7/5 여름철 무더위 극복

꿈키세 31명의 근로장애인 분들과 함께 디오션 워터파크에 방문해 무더운 여름을 즐겼습니다. 30도가 넘는 뜨거운 날씨 속에서도 물놀이를 통해 무더위를 잠시 잊고,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를 해소하며 활력을 되찾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회복지법인동행] 7/12 장애인거주시설 토론회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에서 주최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과 장애인거주시설의 바람직한 운영방안을 위한 토론회'에 법인 및 산하시설 직원 12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장애인들의 행복한 삶을 위한 환경 조성 과 장애인거주시설의 순기능적인 역할을 제언하는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늘봄주간활동센터 · 동행주간보호센터] 7/21 “제15회 여수거북선배 전국장애인 댄스스포츠대회”

늘봄주간활동센터와 동행주간보호센터 이용인 및 직원들이 댄스대회에 출전하여 포메이션 복합장애 부문과 포메이션 발달장애 부문에서 각각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노래와 춤을 좋아하는 우리 이용인들! 대회를 앞두고 매일 오전과 오후, 맹연습을 하며 준비했습니다. 작년 대회에서는 부끄러움을 참지 못해 대회 도중 들어가 버린 황정서 씨가 올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 반, 걱정 반이었으나 두려움을 극복하며 멋지게 끝까지 마무리! 대상 수상과 함께 여수시장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의 격려로 자신감과 성취감을 얻는 행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공동생활가정] 바리스타로 불러주세요

이우리2호 건일 님의 2024년 목표는 바리스타와 제과·제빵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었습니다. 올해 상반기 바리스타학원에서 꾸준히 연습 또 연습한 결과, 가뿐하게 합격! 이제 제과·제빵 기능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 열심히 준비 중인 건일 님의 도전은 계속됩니다.



[송정인더스트리] 7/27 신나는동아리 활동

송정인더스트리의 근로장애인들이 동아리 모임을 가졌습니다. 영화를 보고 카페에서 이야기 나누며 직장 생활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힐링하는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일할 때도 놀 때도 언제나 열심히 하는 근로장애인들 파이팅입니다!

동행소식



[삼해원] 8/9 안다미로 장터

매년 아이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시간! 이번 장터는 모의 경매와 플리마켓으로 실속과 재미를 더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여수지사에서 자원봉사도 해주시고 장터 물품까지 후원해 주셔서 풍성한 하루가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삼해원] 8/10 여름이니까~ 물놀이캠ป์

금호석유화학 설비보전1팀 직원분들과 함께 순천 청소골로 시원하게 물놀이를 다녀왔습니다. 풀장과 계곡에서 신나게 놀고 보양식으로 기운도 보충했습니다. 금호석유화학 설비보전1팀의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늘봄주간활동센터 · 동백원] 8/21 정직한 맛으로 세상을 바꾸는 기업 (주)쿠키아 견학

(주)쿠키아의 두부과자를 사랑하는 중증장애인 33명과 종사자 20명이 3회에 걸쳐 쿠키아 두부과자 제조 공장을 견학했습니다. 공장 투어와 제품 시식이 포함된 이번 행사에서는 참여자들이 자동화 시스템을 직접 보고 좋아하는 과자의 제조과정을 깊이 이해하며 직접 직업체험을 해보는 소중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주)쿠키아는 늘봄주간활동센터와 협력하여 장애인의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약속했습니다. 장애인과 종사자 모두에게 소중한 경험을 선물해 주신 (주)쿠키아 김명신 대표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동백원 생활관 준공식에 초대합니다

장애인거주시설 동백원이
생활관 준공식을 맞이하여 귀하신 분들을 초대합니다.
새롭게 변한 생활관은 동백원의 새로운 도약과 발전을 상징하며,
장애인들의 따뜻하고 안락한 집이 될 것입니다.
그동안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보내주신 분들과 함께
이 기쁜 순간을 나누고자 하오니
부디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법인 동행 대표이사 김홍용 · 동백원 원장 박연희

| 행사 안내 |

일시 2024년 9월 27일(금) 10시 30분

장소 동백원 생활관 앞마당